

갈대상자

2010 소식지 제 37호

김영길 총장,
제4회 Global HR Forum 기조연설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첫월급 기부

캄보디아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문화 나들이
한국, 어디까지 체험해 봤니?

2009 재학생 한스트
“사랑한동안에”

한동 북한 중보기도주간,
그 한주를 돌아보다.



06 외국인 학생의 편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동으로

- 08 김영길 총장의 제4회 Global HR Forum 기조연설
- 10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대학 선정
- 12 월드비전 기증 타일벽화
1만 아동의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 14 김상수 목사 - 기부를 권해 드리면서 가지는 송구함

초청특강

- 17 OECD 정보통신기술국장
- 18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길
_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 19 캄보디아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 22 한동 북한중보 기도주간, 그 한주를 돌아보다
- 24 나눔콘서트 - 북한결핵아동을 위한 사랑의 메아리
- 26 아이티 유학생 - 한동대에서 공부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 28 졸업식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
- 30 강두필 교수 - 슈퍼시니어
- 36 제15대 총학생회 - 총학의 正(정)석

- 38 정태영 재학생 -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 41 창문축제 -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을 담아
- 44 2009 재학생 한스트 - “사랑한동안에”
- 46 선배콘서트 - ‘선배처럼, 선배먼저’
- 48 첫 월급 기부 -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 50 따스한 엄마의 마음, 온누리교회 권사님들과 함께한 ‘MK 밥’
- 54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문화 나들이 - 한국, 어디까지 체험해 왔니?
- 56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 58 제2회 사랑마라톤 - 함께 달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 62 상상하라! See the Invisible! - 입학식과 한스트
- 66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한동 비전 영어캠프

- 70 2009년 하반기 한동대 수상소식
- 72 새로운 한동가족을 소개합니다.
- 74 후원가입안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처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정직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르고 곧은 길입니다.
어려움과 실수, 손해 앞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정직함을 지켜
하나님의 상급이 큰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길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동으로



“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 나데즈다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서 그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07년, 한동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저는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을 미래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야를 넓히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상담 심리 전공이었고, 저는 현재 관련 학문을 배움에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법률 고문이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들과 저 개발국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3세계 국가에서 온 저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러한 곳에서 공정한 법의 이행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는 법률에 대

한 무지입니다. 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불평등,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제게 한동대학교에서의 삶은 많은 힘과 격려가 됩니다. 학교에서의 공부는 개인의 부나 사회적 지위를 개의치 않는 더 믿을만한, 더 열성적인, 그리고 더 용기 있는 리더에 대한 필요성을 제게 알려 주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학교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제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있기에, 저는 제 자신이 한동대학교 학생이라고 불리는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로의 유학이란 아마도 아주 큰 도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동의 외국인 학생으로서, 저는 학교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거쳤던 많은 노력들을 직접 보아왔고, 이러한 노력들은 한 해가 갈 때마다, 아니 한 학기가 지날 때마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학교의 비전이 현실이 되어 한국만이 아닌 세계의 변화가 한동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사랑하는 김영길 총장님과 학교의 행정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학교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한동과 함께 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Global HR Forum 2009

Creative Education for All

Nov. 3(Tue) ~ 5(Thu), 2009 | Seoul, Korea



김영길 총장, 제 4회 Global HR Forum 기조연설 맡아



2009년 11월 3~5일까지 제4회 글로벌 인재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 김영길 총장은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 포럼은 지난 2006년 전 세계적 공동 번영을 위한 글로벌 협력 추진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의해 창설되었다. 주 초청대상은 각국의 관련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 우수 대학 총장 및 학계 전문가, 그리고 기타 인적자원 개발 관련 단체 대표 등으로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다.

‘창의교육 : 창의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세션의 첫 번째 순서로 교육모델이 된 한동대학교의 성과와 비전이 전체 참석자 앞에서 소개되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무감독양심시험과 사회봉사를 비롯한 우리 학교의 인성교육과 그에 대한 성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개발도상국의 리더 양성에 목표를 둔 한동대학교만의 국제화 교육이 소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의 코넬대학교 총장, 싱가포르의 싱가포르국립대학교 총장, 일본 게이오대학교 총장 등이 연설자로 참석했으며, 행사가 끝난 후 일본 리슈메이칸대학교를 비롯한 해외 여러 대학들로부터 우리 학교와의 교류협력을 제안 받아 현재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특히 기조연설에서 우리 학교가 소개됨으로 개교 이후 지난 15년 동안 추진해 온 장인공(工)자형 인재 교육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ㄸ

한동대학교,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최우수 대학에 선정

- 학생 주도적 '다학제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인 STAR프로그램
- 최우수대학 선정으로 추가지원금 9,160만원
- 교육중심대학의 새로운 학부생연구모델로 정착 기대

한동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교육프로그램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어 9,16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한동대학교는 다학제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인 STAR (Self-motivated, Trans-major, Application, Research)프로그램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제출하였으며, 최종 심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부문에 선정된 7개 대학 중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동대학교의 다학제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인 STAR 프로그램은 여러 학부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학부생연구팀이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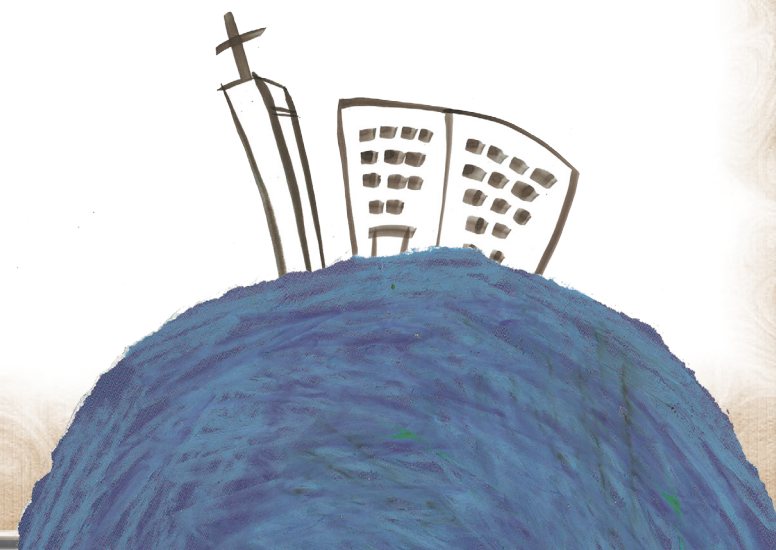
한동대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복수전공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게 함으로 폭넓은 전공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STAR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학제간의 벽을 넘은 협력 연구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찾아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떻게 연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제안서를 제출하고, 교수학습센터인 한동교육개발센터(HEDC)에서는 각 학부의 교수 중 대표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학생들이 제출한 연구과제를 심사함으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학생 연구팀은 과제별로 필요한 연구지원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는 STAR프로그램이 학부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문화를 장려함으로 교육중심대학에서의 새로운 학생연구모델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문제해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사례 공모는 2009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한동대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한동대학교는 2009년 5월,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25억 6천 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작년 4월에 실시되었던 08년 사업추진실적평가에서 5천명 이하 사립대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 09년 지원금에 10%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월드비전 기증 타일벽화 제막식 열려

“1만 아동의 생명을 부탁합니다”

2009년 9월 30일, 한동대학교 현동홀 중앙홀에서는 월드비전으로부터 기증받은 1만 명 결연아동 기념타일벽화 제막식이 열렸다.

이 날 기증된 타일벽화는 2007년 9월 월드비전과 SBS가 협력하여 진행하였던 모금방송 ‘기아체험 24시간’에서 시청자를 통해 해외결연아동후원이 1건씩 이루어질 때마다 결연아동의 얼굴을 그린 타일 1개가 만들어져 그렇게 모인 타일들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벽화엔 결연아동 1만 명의 후원 신청이 선사되었음을 의미하는 타일조각 1만 개가 조합되어 있다. 각 타일마다 해외아동 얼굴이 그려져 있으며, 이 타일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진 전체 작품에서는 3명의 웃고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다.

한동대학교와 월드비전은 지난 2005년 국내외 사회봉사 및 공동 기독활동을 위한 협약을 맺고, 현재 협력관계에 있다. 제막행사는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과 전재현 후원개발

본부장,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과 총학생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길 총장과 박종삼 회장의 식사, 기념타일벽화 제막식, 한동대학교 아카펠라 동아리 피치파이프의 공연, 기념촬영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영길 총장은 “협력관계에 있는 월드비전과 이런 뜻 깊은 행사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자극이 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문제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부자 가족이야기

기부를 권해 드리면서 가지는 송구함



김상수 목사

언젠가 일간 신문에서 고액 기부자들에게는 “기부DNA가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5가지는 ▶유년 시절의 가난 ▶자수성가한 기업인 ▶근검절약 ▶선 기부 후 가족 동의 ▶돌다리 두드리듯 꼼꼼한 기부 등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이 기부DNA를 가지셨다고 봅니다. 아버님은 조실부모하여 너무 유년 시절이 어려웠던 반면에 열심히 일하셔서 자수성가하셨고 어머님은 70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가계부를 쓰고 계실 정도로 알뜰하게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곳 부평에서 자녀들이 있는 서울이라도 나오시려면 꼭 지하철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돈을 아끼시는 것이 몸에 밴 분들이십니다.

이처럼 평생을 애써 일하셔서 일군 것을, 좋은 일이지만 선뜻 기부하도록 권해드리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행여 부모님 마음에 “너희들은 고생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우리에게 는 아끼고 절약해서 얻은 분신과도 같은 재산인데 쉽게 기부를 하자고 하는 것을 보니...”라고 생각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도 처음에는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셨습니다. 기부가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모든 부모들의 마음처럼 당신들의 명예보다 혹은 다른 이들의 유익보다도 내 자녀들에게 더 많



은 것을 남겨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당위성 앞에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기꺼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단 돈 몇 십 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현실을 볼 때 이 기부는 부모님들에게는 분명 넘치는 헌신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감사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이지만 장남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한답시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모시지도 못하는 불효자입니다. 제 대신, 남동생과 제 수씨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매일같이 전화 드리고, 큰 누님 역시 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십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하자면 이렇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형제들이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도 이 좋은 일에 심부름하는 저의 생각들을 기쁨으로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런 형제들에게 만 배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직간접적으로 한동대학교에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더욱 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부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인연을 찾자면 김영길 총장님께서 2008년 11월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셔서 새생명축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총장님께서 더구나 11월은 입시설명회나 준비로 가장 바쁜 달인데도 선뜻 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부분 유명 강사분들은 저녁도 드시지 않고 설교만 하고 가시는데 총장님께선 함께 식사도 하시며 너무 소탈하게 한동대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주시면 한동대학교에 하면 좋겠다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기부로 우리 가족과 한동대학교는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모두 한동의 가족이 되어 한동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더욱 더 좋은 일로 만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OECD 정보통신기술국장 초청 특강

2009년 10월 28일, 올네이션스홀 3층 강당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통신기술국장 레스터 로드리게스(Lester Rodrigues)의 특별강연이 열렸다. 부산에서 개최된 OECD 세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그는 “OECD's Work in World Affairs: How you can get involved”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국제경제환경에서 OECD의 위치, OECD 내 정보통신기술국의 역할, 한국 내 OECD의 위상, 우리 학교와 OECD 간 체결된 인턴쉽 교류사업 등에 대해 전했다. 이후 로드리게스 국장은 올네이션스홀에 설치된 OECD 사무실 명명식에도 참석해 “한국과 한동대학교의 위상과 배려에 놀랐다”며 감사를 표했다. 장규열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강연이 OECD와 맺

은 학생인턴 파견협정을 기념할 수 있고, 또한 많은 학생들이 이 협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하며 특강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동대학교는 2008년 9월, 국내 최초로 OECD와 학생인턴 파견협정을 통해 매년 4명까지 OECD 정보통신기술국에 인턴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 명의 인턴이 프랑스 파리의 OECD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영길 총장은 “국제 경제 무대에서 주역을 맡고 있는 OECD의 활동과 역할을 생각할 때, OECD에 인턴을 파견하는 한동대학교와 OECD의 협력관계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특강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길”



제 57대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천정배 의원의 강연이 지난 9월 25일 학생회관 104호에서 열렸다. 이번 강연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리더십학부의 리더십센터에서 주최하는 제1회 명사초청 특강이다.

본 강연은 원래 오석관 306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많아 학생회관 104호로 급하게 장소를 변경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지 못한 채 강의를 들어야 했고, 이를 통해 본 강연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천정배 의원은 이 날 강연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화두를 학우들에게 던지며 현실의 어두운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의 도래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을 마친 후 천의원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힌 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천정배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판검사 임용을 거부하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5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직을 맡았으며, 2005년엔 법무부 장관직을 지냈다. 현재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민생의 소리를 들으려 전국을 순회 중이다. ✍

김동인 기자 kimdi@hgupress.com

캄보디아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글로벌 기업가로 길러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의 대학교가 진행하고 있다. 2010년 1월 10~16일, 한동대학교가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글로벌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 (Glob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GEEP)’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2010 캄보디아 글로벌기업가정신 양성과정’이 프놈펜서 남쪽 캄땡 실라(Kampong Seila)지역에 위치한 롤링스 인스티튜트(Rawlings Institute)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될 강의 내용은 기업가정신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계획서 작성, 경영전략, 지적 재산권, 마케팅, 적정 기술과 기업가 정신, 국제경영학, 캄보디아의 농업 비즈니스 등 기업가로서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 강의를 담당할 강사진은 한동대학교와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교수 7명과 공동주최대학인 왕립법경대학(RULE)의 교수 2명으로 구성되었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한동대학교와 한동국제법률대학원에 재학 중인 30여명이 학생이 자원봉사자로 동참했다. 이 프로그램의 훈련생으로는 왕립법경대학, 왕립농업대학, 프놈펜왕립대학, 캄보디아 파나사스트라 대학 등 총 7개 대학교의 학생들과 현지 NGO 청년들이 참여했다.

훈련생들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준비된 강의를 통해 기업가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강의 후에는 8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가상의 기업을 만드는 훈련도 받았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이 그룹과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채용조달, 운송과 판매 등 실제 기업가가 되어 자신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

을 실습하는 체험의 장이 되었고, 그룹에서 토의된 내용은 발표를 통해 교수진의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정은 그 동안의 교육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팀의 사업계획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작성한 팀을 선발, 시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기업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기업가정신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010 글로벌기업가정신 양성과정’의 총책임자인 한동대학교의 김기홍 교수는 “기업가정신은 현재 선진국들이 선진국의 진열에 오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제적 지위를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캄보디아에서 개최한 글로벌기업가정신양성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함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 (GEEP-Glob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을 개발하여 단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GEEP는 한동대학교가 UNDP와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GEEP는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의 기폭제로서 참가자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어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며, 창업하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필요한 기업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킴으로 지속적 발전을 가능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한동대학교는 이러한 GEEP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기업가정신양성과정 (GET-Global Entrepreneurship Training)’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동대학교에서의 첫 시작에 이어 2009년에는 케냐와 몽골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제4회 프로그램을 이번 캄보디아에서 진행했다. 지난 3회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나라는 모두 40여 개국으로 총 16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고, 이들 중 10여명 정도는 실제 창업을 시작하여 이 프로그램의 열매가 되었다.



한동 북한 중보기도주간, 그 한 주를 돌아보다

지난 12주차는 북한중보기도주간(이하 북중주간)으로 이 기간에는 북한 관련 단체인 북중모, NKFR, NWS, 북한사랑학회, LANK, 동북아법학회, Jesus Army, 성토모 등이 함께 북한의 실태를 알리고 단체들간의 연합과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진다.

월요일 점심시간 식당 앞 한 켠에 모여있는 그들은 바로 북중주간을 주관하는 북한관련 단체의 회원들이다. 북한 결핵 어린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점심 금식으로 북중주간은 시작되었다. 그 마음은 매서운 겨울 바람도 식히지 못했다. 국제학교 식당에서 열린 개회예배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 북중주간 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튿날인 화요일에는 북한선교방송을 하고 있는 모퉁이들 선교회의 이사야 부장 초청강연이, 수요일에는 '통일을 앞둔 이 시대의 기독교 청년으로서 우리의 자세'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각 북한관련모임의 대표 학생들과 세 명의 교수(김성훈, 전명희, 유장춘)가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북한'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목요일에는 '천국의 국경을 넘다'라는 제목의 탈북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였다. 영상을 시청한 강인애(GLS 09) 학우는 "지금까지 북한을 생각할 때면 단순히 나쁘겠지..라는 것이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북한의 현재를 알 수 있

게 되었고 그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다.

금요일에 열린 LANK가 주최하는 북한 인권, 법률에 관련된 세미나와 결핵운동본부 김상환 본부장의 세미나는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시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저녁, 조준모 교수의 열두광주리 작은 콘서트가 열렸고, 콘서트에서 모아진 앨범 판매 수입 전액이 북한 결핵 아동을 돕는 'Save 5000 NK Children Handong Project'에 전달되었다. 북한사랑학회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전명희 교수는 "북중주간을 추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북한에 대한 개인적 관심으로 준비한 것인데 관심 있는 교수님들과 북한관련모임들이 모두 동참하여 그 의미가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북중주간은 토요일 폐회예배로 끝이 났지만 앞으로 계속될 많은 캠페인과 활동 등 북한관련 모임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오아영 기자 ohay@hgupress.com

북한결핵아동을 위한 사랑의 메아리 조준모 교수와 함께한 나눔 콘서트



지난 11월 13일, 학생식당인 열두광주리에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예가' 등으로 유명한 조준모 교수의 3집 발매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학생들로 구성된 밴드와 함께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노래는 식당을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놓

았다. 이번 콘서트는 'Save 5,000 NK Children' 캠페인과 함께 진행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특별히 콘서트에서 새터민의 간증과 특송 순서는 그곳의 있던 모든 사람들 심금을 울리는 시간이었다. 조준모 교수는 그날 판매한 앨범의 수입 전액을 북한아이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했다.

지난 10월 26일 출범식을 가진 'Save 5,000 NK Children'은 북한 결핵어린이 5000명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Awareness Building'과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성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Fundraising', 북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을 경험하자는 'One Body of Christ'를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시작한 이 운동은 초대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를 지낸 이윤구 교수를 비롯, 한동대학교 교수들과 총학생회, 학내 북한관련 동아리 등이 참여했으며, '대한적십자사',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와의 협약이 이루어져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 운동은

앞으로 포항지역의 교회, 기업체,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 결핵어린이 5000명을 살릴 수 있는 1억5000만원(1인당 3만원)이 모일 때까지 진행될 것이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로 보내지고, 보내진 성금으로 본부에서는 결핵약 6개월분과 5가지 영양제가 정기적으로 북한에 발송할 것이다. 북한에 보내질 의약품은 북한 보건성에서 의약품 수취 및 배분계획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며, 이 모든 과정을 결핵제로운동본부장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약품배분확인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전명희(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북한의 결핵 실상을 알리고, 결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며

"통일이 되면 북한의 어린이들이 곧 우리의 희망이라는 마음과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 내 유일한 아이티 국적 유학생, 프로펫 아르보엣

한동대에서 공부할 수 있어 자랑스롭다

눈물을 담아 빛은 진흙 쿠키로 전 세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이티, 1770년 이후 2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진도 7 메가톤급 지진은 아이티는 물론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아이티에 찾아온 이 지진으로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모든 시설이 붕괴되었고, 아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참담한 소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그 순간 한국 내 유일한 아이티 국적의 유학생 아르보엣 프로펫(Arbouet Prophete)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도 프로펫의 부모 및 형제 5명이 살고 있는 집은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친척과 친구 여러 명이 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출석하던 교회는 무너져 내렸다. 때마침 방학을 맞이한 프로펫은 자신의 나라 아이티에서 국가와 이웃을 위한 복구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또한 총학생회는 한동가족 구성원인 그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였고, 10학번 신입생들은 한스트(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아침 금식을 통해 모은 성금을 프로펫에게 전달했다.

프로펫은 글로벌 경제전문가의 꿈을 안고 지난 2006년 우리학교 경영경제학부에 입학해 국제법과 국제경영학을 전공했다. 재학 중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집사님으로 통할 정도로 학교 교회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현재 그는 개발도상국에 상존하고 있는 인신매매나 아동노동 등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꿈꾸며 한동국제법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학위수여식에서 “한동대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할 수 있어 자랑스롭다. 재학 중 리더십과 공동체생활을 통해 좋은 동료들을 많이 얻어 기쁘다”며 “대지진 참사 때 친구들의 나를 위한 기도와 격려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학교의 제3세계를 향한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학 중 최초로 유네스코 유니트윈 (UNESCO UNITWIN) 프로그램의 아시아 주관 고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개도국의 많은 대학들과 이미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UNDP(유엔개발계획), 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한-UNDP 국가사업’에 선정되어 개도국 지도자 육성사업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영길 총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여 잘 살게 된 데는 국제 사회의 원조가 필수적이었고, 이제는 한국이 그 빛을 갚아야 한다”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의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학교로 유학 오게 하여 선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꾼다

설에 내려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교내 울타리 안 곳곳에서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제12회 학위수여식이 장순홍 현동학원 이사장님, 김영길 총장님, 박승호 포항시장님 등贵宾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청년실업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체감경기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요즘 학사모의 무게가 여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마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졸업을 축하해 주며 함께 사진을 찍는 졸업생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희망이, 우려보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624명, 석사 127명이 학위를 받음으로 우리학교는 총 5666

명의 학사와 698명의 석사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졸업생 중에는 외국인 학우 9명이 학사 학위를, 4명이 석사 학위를 받아 글로벌 리더로서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내빈 소개와 찬송가, 우리학교 아카펠라동아리 피치파이프의 공연으로 이어졌고, 이어 설교를 맡으신 황영호 교목실장님은 졸업생들을 향하여 “졸업하니 어떠세요?”라고 묻고 졸업생들은 일제히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황영호 목사님이 “슬프지 않아요? 가지 마세요”라며 농담을 하자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황영호 목사님은 “우리는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며, 나의 목적,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것임을 기억합시다”라며 졸업생들을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였다.

황영호 목사님의 설교와 학사보고 끝난 후 졸업생들은 순서에 의해 강당 앞으로 나와 학위를 수여 받았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아프가니스탄, 몽골, USA, 파키스탄 등 외국인 학우들의 출신 나라와 이름을 각각 호명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유일한 아이티 유학생 프로펫 아르보엣 학우도 있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21C는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며 유능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한동을 떠나는 학우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한동에서 배운 아너코드와 정직, ‘배워서 남 주자’는 한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께서 “I love you! GOD loves you!”라며 말씀을 맺자 좌석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위수여식이 끝난 후 효암채플실 앞 계단은 사진을 찍는 인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많은 졸업생들이 옛 추억들을 떠올리며 학교 이곳 저곳을 둘러봅니다. 학교 버스에 새겨진 로고, 한동의 하늘, 채플의 십자가 등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오늘은 바라보고 있어도 그림습니다. 어느덧 그리움이 묻어있는 학교와 친구들의 모습은 가져온 사진기에 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슈퍼 시니어"

강두필 교수 (언론정보문화학부)

“음.... 아저씨 이 길로 가면 정말 한동대학교가 나오나요?”

“....아직 멀었어요. 산꼭대기로 한참 더 올라갑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새카만 산길을 택시 기사분과 단 둘이 올라가는 기분, 참 알곶었다.

내가 한동대학교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90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한참을 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산길, 그 산길은 자동차면허시험장의 S자 코스 같은 그런 길이었다. 순간 한 밤중 산속에서 납치되는 장면이 머리 속에 그려지고, 그 두려움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끔 했다. 아.. 하나님 왜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서울에서 광고대행사와 광고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던 나는 인터넷 검색 중 한동대학교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소개된 한동대학교에서 교수를 초빙한다는 채용 공고까지 찾아 읽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세워 왔던 나의 인생 목표 중 단 한번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영화감독과 CF감독, 그리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던 나는 무엇에 홀린 듯이 구청, 동회, 모교를 찾아가서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흥분 속에 구비서류를 등기속달로 학교에 보내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상시처럼 CF촬영을 위한 콘티를 만들고 광고주와의 미팅을 하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얼마가 흘렀을까... 면접 날짜를 알려

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면접 전날 밤. 포항에 도착한 나는 하나님의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마음은 한동대학교로 나를 데려다 줄 택시로 내 발을 움직이게 했고, 택시에 몸을 실은 나는 “한동대학교요”라는 한마디 말을 내뱉은 후 창 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택시에 몸을 실은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점점 수상쩍은 산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택시기사님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까...차는 힘든 커브를 하고 언덕길에 접어들었다. 그 때 내 눈을 통해 들어온 플래카드 한 장.

“이곳은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며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대학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보니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잠시 택시에서 내려 학교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다시 타고 갔던 택시에 몸을 실어 숙소로 돌아왔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나는 드디어 1999년 3월, 한동의 식구가 되었다. 첫 학기 시작 전 나는 당시 언론정보문화학부의 유일한 전임교수였던 김연중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에 관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가 맡은 과목이 영상제작과 광고인데 아직 학부에 실습할 기자재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학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98년 언론정보문화학부 신설)현재 보유한 기자재는 Sony 캠코더 3대와 편집용 컴퓨터 한 대가 전부이고, 실습 스튜디오나 편집실도 아직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드보카트를 감독으로 영입하였지만 국가대표 선수만 선발한 상태이고, 훈련을 위한 전용축구장과 골대, 그리고 공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필요한 기자재는 차차 장만하도록 할 것이고 당분간은 전술교육만 시키라는 말로 이해가 되었다.

전술교육이라 4.3.3에서 4.2.3으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하였다. 한동대학교의 언론정보문화학부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신문 볼 시간도, TV 볼 시간도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부만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중문화는커녕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순진무구함을 무기로 세상에 나

가 문화와 세계를 바꾸겠다는 대담함으로 완전무장하고 있었다. 적은 알지 못한 채 자신 만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新손자병법을 설파하는 것 같았다. 당시의 95학년부터 98학년까지의 전공 학생들에게 나의 모습은 단지 신기한 연예인처럼 비춰진 것 같았다. 나중에는 이야기지만 개강 전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새로 부임할 교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고 한다. 뽀뽀 머리에 귀걸이를 한 외모에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교수가 부임한다고 퍼져있었다. 그 소문에 비하면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머리를 뽀뽀 밀기엔 내 뒤통수는 너무 납작했고, 귀 뚫는 것이 무서워 귀걸이는 절대 할 수 없는데다가 돈이 없어 비싼 스포츠카도 살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니까...

실습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불가능했고 보유하고 있다는 유일한 장비 캠코더는 한 달에 한번 꼴로 고장이 났으니 수업시간 방실방실 웃는 얼굴의 학생들을 보며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들은 내 마음에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의 시동을 걸게 하였고, 마침 전에 일하던 광고업계에서는 전에 없이 활황으로 일거리가 넘친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며 성화였다. 내 마음에 서서히 찾아 든 걱정으로 인해 사직을 결심하게 되었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살 집과 다시 일할 광고대행사와의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다.

영상제작수업은 장난감 같은 캠코더 3대로 진행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캠코더라는 장비는 단지 집에서 아이들 모습을 담아내는 장난감으로만 여겨왔는데(영화나 촬영현장에서 나는 10여 년간 35mm리 대포같이 커다란 장비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구비된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 다른 방도가 없었다. 중간고사 즈음이었던가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이 나에게 보여줄게 있다며 강의실인 학생회관 101호의 불을 소등했다. 내 생일도 아닌데 깜짝 파티를 하는가 순간 생각도 들었는데...

그는 항상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용기가 없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도 항상 그는 그녀의 대책선 뒤에 앉아 그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다.

"그녀는 그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

"오늘도 그녀는 커피 머신에서 그를 위한 커피 한잔을 더 뽑아 들고 그를 기다린다."

"그들은 오늘 커피 머신 앞에 마주 선다."

"각자 두 개의 커피를 손에 들고..."

그리고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각본 감독 편집 조감독 음악 조명 어썬딩 1면 17...

나는 너무 놀라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학생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뜨거운 한 줄기 눈물이 내 뺨을 타고 미끄러졌다. 아이들 앞에서 창피하게...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 한동의 아이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슈퍼주니어들이었다. 거의 말로만의 도상훈련을 하였음에도 스스로 시도하여 척척 해 내는 놀라운 아이들이었다.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재능이 넘치는 아이들을 두고 내 살길 찾아 가겠다고 모색하였던 일을 용서해주세요. 이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재능이 세상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제게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 보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아이들의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2002년 가을학기 1학년 대상의 영상미학이라는 수업에서 나는 또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이 수업은 대학생활을 처음 하는 1학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학점을 낮게 받았다고 재수강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철저한 1학년 새내기만을 위한 수업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공부 방법 차이와 한동에서의 1학년 생활이 갖는 의미, 그리고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수많은 이벤트와 이야기로 강의가 진행된다. 여러 명의 선배들이 우정 출연하여 경험담과 진로문제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대학생활 내내 진행될 팀 프로젝트나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철저한 시험준비와 시험지 작성 요령 등 실제적인 기술(skill)을 배우기도 한다. 정작 수강제목인 '영상'에 대해서는 그리 큰 이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내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업 중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곤 했는데 그 날은 우리 한동의 졸업생들이 만들어서 일반 판매를 한 적이 있는 "Inspiration"이라는 타이틀의CD를 듣고 있었다. 수록된 곡 중 "우리 이곳에 모인 그 꿈을 잊지 말자"는 가사의 곡에 나의 감정이 폭발치고 말았다. 곡의 마지막에 솔로는 "당신

의 그 꿈을 보여줘요.”라고 읊조리는데... 그 순간 “너의 한동으로 올 때의 그 꿈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고, 나는 마음 속에 밀려오는 부끄러움, 민망함, 슬픔, 창피함으로 ‘주님, 죄송해요. 첫 마음을 다 잊어버린 채 최선을 다하지 않고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네요.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잘 할게요.’라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그 시간이 수업시간임을 잊은 채... 눈을 떴을 때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눈은 일제히 내 얼굴을 향해 있었다. 수업 도중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학생들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나는 민망한 마음에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의 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주기를 당부하고 학생들은 그러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었다.

한동에서는 눈물 흘릴 일이 무척이나 많다. 특별히 스승의 날이나 교수의 생일날이 되면 학생들은 연구실로 찾아와 먼저 허락을 구한 뒤 청소로 연구실을 깨끗이 가꾸고 온갖 테코레이션을 해 주곤 한다. ‘교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등 마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질 때 분위기를 만들고 자 장소를 꾸미던 것과 같이 학생들 각자가 가진 최고의 실력을 동원하여 교수들을 기쁘게 해준다. 가끔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이 연구실 앞에서 흠칫 놀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게 웬 난리 법석이냐는 듯 물끄러미 바라보는 분들은 여지없이 한동을 처음 방문하시는 손님들임에 틀림없다.

학생식당에 붙어있는 학생들의 롤링페이퍼에 교수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정성껏 담아 스승의 날에 교수님께 전해드리는 것이 한동의 전통이 되었다. 나는 처음 스승의 날 받았던 롤링페이퍼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교수가 된지 두 달 만에 받게 된 학생들의 사랑은 기쁨 그 이상의 감동이었고, 그 증거물은 아직도 집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학부모님들로부터 전화나 메일로 상담을 요청 받기도 한다. 글썄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부모간의 상담이라니... 다른 대학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상담에 앞서 이렇게 운을 띄운다. “우리 아이가 집에 오면 항상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교수님을 존경하는구나 생각이 들죠. 만약 교수님께서 직접 우리 아이를 타일러 주시면 귀담아 들을 것 같아요”라고 말이다. 휴학하려는 아이, 귀를 뚫고 싶어 하는 남자아이, 외국 여행을 위해 아르바이트 한

다며 공부를 소홀히 하는 아이 등을 타일러서 마음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신다. 사실 내가 말하면 정말 마음을 돌이킬까 의구심도 들었지만 부탁을 받았기에 노력은 해야 했다. 그 아이를 불러 혼을 내기도 하고, 바닷가에 함께 가서 파도를 보며 내 어릴 적 방황기도 이야기해 주기도 했으며 귀 뚫은 후 뚫은 자리가 굵아서 후유증이 심한 경험을 가진 다른 아이의 이야기, 군대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등 많은 이야기로 설득하기도, 용기를 주기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며칠이 지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라는 연락이 오곤 했다. 이미 학생들은 교수와 만나는 순간 교수의 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작정 하나 보다.

며칠 전 지역난방공사라는 곳에서 심사의뢰가 들어와 참여한 적이 있다. 그곳 홍보실에는 우리 학부 졸업생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모든 심사가 끝난 후 팀장, 부장님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졸업생인 그 학생에 대하여 모든 일에 성실하며 여러 명이 감당해야 할만한 기획안을 만들어 낸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때의 흐뭇함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

다.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수업 시간을 만들어 준 한동의 학생들.

요즘은 결혼한다며 전화나 메일로 중종 안부를 전하는 졸업한 제자들. 모두를 사랑한다. 수퍼주니어들이 점점 수퍼시니어로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분명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젠가 졸업생 중 누군가가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하여 혹시 나를 찾지는 않을까 학생들과의 추억(리포트, 시험 답안지 등)을 모아놓는다. 그때가 현실이 되면 그 추억을 보여주리라... 생각만으로도 내 입가엔 미소가 퍼진다. ㄷ

사진 제공 : 도토리픽처스



제15대 총학생회

총학의 正(정)석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5대 총학생회 ‘총학의 정식’ 회장 04학번 경영경제학부 심규진, 부회장 06학번 법학부 설총명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후원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후원자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멀리 돌아가도 30분 남짓, 이 아담하고 아름다운 한동의 교정을 돌다 보면 참 많은 감회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칸에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이 묻혀있는 채플을 지날 때면, 한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학우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 나오는 생활관을 돌 때면, 예수님의 참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를 그려보곤 합니다. 교수님들의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강의실에서는, 주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로, ‘배워서 남주자’는 각오를 불태우는 치열한 지성의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한동과 ‘소통’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는 인위적인 과학과 편협한 가치가 난무하고, 타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긴장과 갈등을 원천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한

동이 이러한 세상에 굴복하거나, 이방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상을 뜨겁게 끌어안고, ‘구별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동과 ‘연합’ 하고 싶었습니다. ‘각자’의 하나님, ‘각자’의 한동으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공동체, 목적을 위해 폭력적 수단도 불사하는 세상을 본받기 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된 한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NIV)”는 잠언 16:9의 말씀을 붙잡고, 2010년을 더욱 그 분의 인도하심 아래 기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총학의 정식’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잔존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밖에 없으며(계 11:15),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사회의 순간순간에 살아 있음을 믿고, 신실국인 ‘사회협력국’을 통하여 야성을 가지고 이 땅에 도전하는 한동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와 대학간의 연합을 통하여 대학생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려는 포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갈대상자 후원자 여러분, 저희 ‘총학의 정식’이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학우들을 섬기고, 한동이 선한 것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제 이야기 들어주시겠어요?



정태영 (09)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하세효팀(팀명)의 09학번 새내기 정태영입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 팀에 부어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연합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 나눴은 이미 지금은 많이 알려져 한동대학교의 특성화 교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팀제도'에서 시작합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각 팀에는 담당교수님이 계시고, 학년과 성별의 비율에 따라 고루 섞인 3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면 기숙사 방 배정도 팀원으로 이루어지기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귀한 만남을 엮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취업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는 3~4학년 선배님들과 전공 공부 및 동아리 활동으로 분주한 2학년 선배님들로 인해, 공동체 생활의 기반이었던 팀은 점점 형식화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회에서는 '선배처럼, 선배먼저'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동의 선-후배간 사랑을 다시 시작할 사람은 바로 선배라는 의미였습니다.

저희 팀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기계과에 소속되신 김재효 교수님이십니다. 전공이 '기계' 계통이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성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3~4학년 형들의 출석률이 정말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팀모임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 초반 선배 형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유익하

고 즐거운 팀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가 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졸업을 앞 둔 선배님들에게 '취업'이라는 부담이 가중되었고, 후배들도 팀 외에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팀모임을 통한 서로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저희 팀의 선배님들은 취업준비를 하시면서도 팀모임 참석은 물론, 오셔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진행도 해 주시고, 1학년인 저희들과의 축구와 식사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중간고사 기간에는 4학년 형과 누나들이 모여 팀 후배들을 위해 Panel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Panel에는 중간고사를 치르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선배님들의 마음이 담긴 초콜릿과 과자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초콜릿과 과자 등)에는 각각의 후배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뽁뽁하게 적힌 작은 쪽지도 함께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선배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제는 새내기들이 나섰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의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선배님들에게 '사랑하는 선배님들! 공부를 잠깐 멈추시고 야식코너로 오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가 전달됩니다. 선배님들을 위해 새내기들이 용돈을 모아 치킨을 선물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저희 팀의 선-후배간 사랑은 더욱 더 돈독해졌습니다. 모든 팀원들은 팀모임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인터넷 클럽을 통해 감사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채플을 드립니다. 이 채플 때에는 모든 팀들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09년 10월 28일 채플에 특송하는 것으로 정해졌

습니다. 이 특송 준비를 위해 팀 안에서 디렉터를 정하게 되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나보다 6~7살 많으신 선배님들을 인도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께서 먼저 저를 리더로서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면, 언제나 경청해 주셨고, 선배님들이 도와야 하겠다는 일(스피커 빌려오기, 연습장소 빌리기 등)들도 열심히 솔선해 주셨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랑이야” 라는 제목의 특송곡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곡을 선정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디렉터였던 제가 이번 학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한13:34~35)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가 속한 팀과 한동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이 특송이 09하세효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09하세효의 영원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비록 제가 어리지만 감히 선배님들 앞에서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제는 연합에 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팀 특송 마지막 연습 때까지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 기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자고 기도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는 팀특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물론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행복했습니다.

팀 특송 후에 많은 분들로부터 은혜롭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 팀이 준비를 하였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었고, 우리 팀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후배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

그것은 ‘사랑’ 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배우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가서가 노래하는 사랑을 담아



2009 창문축제

‘Song of Songs’ 의 현장으로

열기와 낭만이 한데 어우러진 대학생들의 꽃이라 불리는 축제, 올해도 어김없이 한동에 축제의 문이 열렸다. 2009 창문축제(창조하는 문화 축제)는 ‘Song of Songs’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름에 걸맞게 각 프로그램에서부터 홍보, 데코에 이르기까지 아가서(Song of Songs)에 기초하여 기획되었다. 또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형상화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일곱 가지 이야기로 풀어내어 축제 속에 담아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첫만남: 예배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아가서 2:4)

이번 창문 축제는 ‘스캇브레너 목사-레위지파’의 초청집회로 시작되었다. 축제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과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선포하여 한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는 시간이었다.

2. 완전한 사랑의 노래: 공연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가서 8:13)

노래, 춤, 악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완성하는 공연은, 평소에 같이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분주했던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끼를 한껏 펼침으로 드러나는 멋진 모습이 가득 담겨 있기에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공연은 아가서의 사랑이야기를 각 동아리마다 다양한 콘텐츠로 풀어낸 Love Story,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뽐내는 슈퍼스타H 등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슈퍼스타H에서는 뮤지컬 그리스의 의상과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 낸 ‘Art Company’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3. 소박한 식탁: 섬김 마당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욕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
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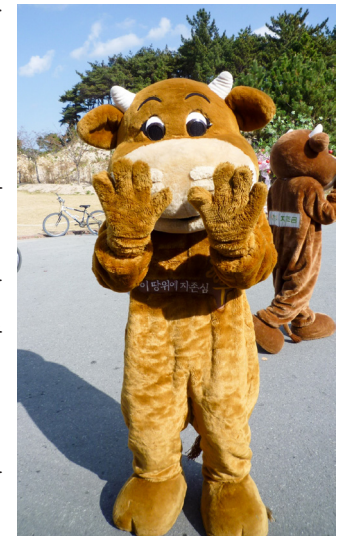
어떤 것이라도 바꿀 수 없고 꺼지지 않는 사랑을 Make A Wish 재단과 함께 불치병 아동에게 나눴다.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LoveRFloweR’ 사업은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시간을 나누어 직접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다. 기빙트리, 커피스쿨, 길거리마켓 등으로 판매된 수익금의 일부를 포항지역 내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소원을 이루는데 사용한다.



4.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강연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
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 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아가서 7:12)

포도 움과 석류 꽃은 삶이 맺은 열매이다. 신부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 오늘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가수 ‘선’의 강연이 있었다. 아내 정혜영과 세 자녀만을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제 3세계의 아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선은 “가질 때의 기쁨보다 나눌 때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고 답했다. 사랑이 테마인 축제에 걸맞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09 재학생 한스트

“사랑한동안에”

-한도를 떠나기 전 다시 한번 비전을 품다-

한동인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들 중 하나는 아마도 한스트(HANST)일 것이다. 한스트란 Handong Spirit Training의 약자로 재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예비 졸업생들이 한스트를 통하여 품은 비전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때의 설렘이었던 마음을 재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제1회 재학생 한스트, “사랑한동안에”가 열리게 되었다.



2009 재학생 한스트 “사랑한동안에”는 ‘사랑한 동안에’, 그리고 ‘사랑 한동안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 이 행사는 학교에서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Why not change the world?”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언제 When’, 그리고 특별히 ‘왜 우리가 Why us’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한 선택강의는 ‘Why not change the world?’의 비전 성취를 위해 현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졸업생 선배들의 구체적인 나눔으로 진행되어 경험과 함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한스트를 대표하는 섬김과 정직의 상징인 세손식과 명에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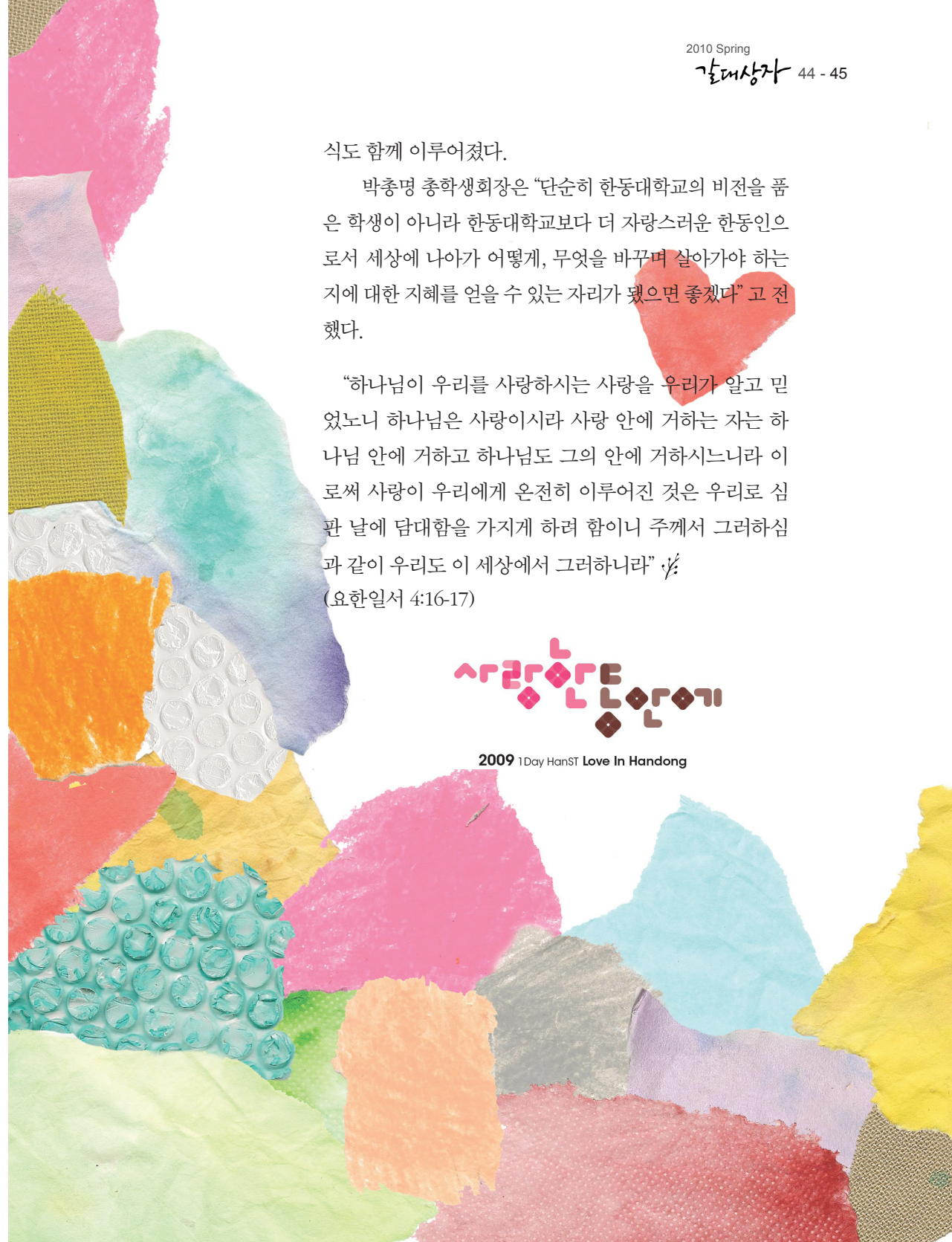
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충명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한동대학교의 비전을 품은 학생이 아니라 한동대학교보다 더 자랑스러운 한동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16-17)



2009 1Day HanST Love In Handong



자치회 캠페인, '선배처럼, 선배먼저'

'선배콘서트'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로 선배로서 관록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활동을 하지 않는 OB들이 각자 가 속했던 동아리에서 준비하여 공연을 펼친 '선배콘서트'의 현장이다. 평균 나이 27세로 구성된 한풍의 경쾌한 울림으로 시작된 선배콘서트는 두나미스, 레버리, 지지, 지오 등 총 8팀의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만큼 후배들의 환호는 뜨거웠다. 각 동아리마다 공연 전 갈대상자, 세족식, 한스트, 방들이 등 자신이 새내기였을 때 느꼈던 한동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자치회 김영원 회장은 "이 작은 콘서트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동을 위해 끊임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을 바뀌나갈 수 있는 것이다"고 전하며,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하나됨으로 노래 부르며 콘서트를 마쳤다.

이번 콘서트는 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선배처럼, 선배먼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선배도, 후배도 없었던 95학번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문화를 물려줄까 설레며 밤낮으로 고민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무리 바빠도 후배들과 함께 하고 싶어 팀모임은 빠지지 않았던 선배들의 모습.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한동의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선배처럼, 선배먼저' 캠페인은 선배콘서트 외에도 프리허그&안마 운동, '갈대생각' 책자 제작, 글,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선배 로고송 제작 등으로 진행되었다.

자치회 김영원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선배의 의미가 약 2700명의 한동인들 각자의 삶에서 자신에게 맞도록 다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선배인 내가 후배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로 밤을 지새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이 캠페인이 한동인들 모두가 한동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후배들을 향한 따뜻한 후원의 물결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였고”

“처음”이란 단어는 마음을 설레게 한다. 만남도, 사랑도, 일도.. 어떤 것이든 “처음”은 떨림으로 다가온다. 이토록 설레게 하는 처음이란 것에 특별한 의미를 담는 이유가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그래서 준비된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빨간 내복으로 상징되는 첫 월급 역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최선을 위해 쏟은 땀의 보상이며, 열매다. 이토록 의미 있는 첫 월급이 후배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사랑을 담아

한동대학교에 매년 기부되고 있다. 특별히 한동 졸업생들은 첫 월급을 모교에 기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를 두고있기에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배들의 손길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첫 월급을 기부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2~3학년 때부터 기부를 생각해왔던 신새미(04, 경영경제) 학우. 그녀는 “졸업 후 어떤 회사를 가게 되든지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 쓰이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한동대학교에 기부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 방법이 나와 같이 모교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나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 기부하는 등 자신의 방법으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동기들의 모습을 보며 한동대학교는 역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전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였고”(느 10:35) 느헤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시듯, 첫 열매는 단순한 물질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은 모든 열매가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 속에서 이러한 첫 다짐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세상을 바꾸는 자랑스런 한동 선배들이 있기에 후배들은 더욱 더 큰 꿈과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스한 엄마의 마음, 온누리교회 권사님들과 함께한 'MK의 밤'



한동대학교에는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있다. 특히, 생일이나 명절 때가 되면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 부모님 생각은 더욱 간절해진다. 이러한 떨치기 어려운 외로움을 품은 채 생활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MK의 밤'.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외로운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채우게 된다.

'MK(Missionary Kid)의 밤'은 멀리서 온 선교사 자녀들과 새터민을 위로하는 시간으로, 매년 김영애 사모님을 중심으로 준비된다. 2009년에는 특별히 온누리교회 권사님 열 한 분의 도움으로 열리게 되었다.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직접 한동대학교에 방문하셔서 대리부모를 자청하고 나

* MK(Missionary Kid) : 선교사 자녀

선 것이다. 심상선 권사님은 “언젠가 한번쯤은 한동대학교를 방문하고자 했었는데, 방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왕이면 부모와 떨어져 외롭게 학업 생활을 하는 오지 선교사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래서 권사님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모두들 엄마의 심정으로 흔쾌히 동의를 했다”고 전해 주었다.



색색의 테이블보로 꾸며진 탁자 위의 분위기 있게 놓여진 초에 불을 켜으로써 학생들을 맞을 준비가 끝났다. 6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노란색 이름표를 받아 왼쪽 가슴에 붙인다. 감사기도로 시작된 'MK의 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루 동안 학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학생들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식사 시간이 이어졌다. 엄마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된 맘스 키친표 뷔페는 샐러드, 롤, 스파게티, 간pong, 떡갈비, 홍어회무침 등 생일상처럼 푸짐했다. 맘스 키친의 박애라 사모님은 많이 먹으라며 따뜻한 엄마의 심정으로 학생들에게 스파게티를 직접 퍼 주신다.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정겨운 식사시간이었다.

식사가 마칠 무렵 혼자 들기도 버거울 만큼의 거대한 케이크가 들어왔다. 이번 'MK의 밤'의 취지가 모두를 위한 생일잔치였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문성학 전도사는 “선교사 자녀들과 새터민 학생들은 자신의 생일을 부모님과 같이 지내지 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생일은 모두가 다르지만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축하를 받고 또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생일잔치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반짝거리는 곱갈모자를 쓰고 핸드



폰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기 바쁘다. 소원을 가득 담아 케이크의 촛불을 끈 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부르며 서로를 축복했다. 다음으로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이런 모임이 전세계 어디서 이루어질까”라고 감탄하시며 “그리스도안에서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다”고 하셨다. 또한 이렇게 봉사해 주신 온누리교회 권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세계적 패션 디자이너이신 진태옥 선생님과 그의 딸인 노승은 선생님이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셨다. 두 분은 오래 전부터 한동대학교를 후원해 오신 갈대상자 회원이었지만, 한동대학교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진태옥 선생님은 앞에 있는 새터민 학생들을 가리키며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이북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해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



그 후, 각 테이블마다 두 분의 권사님들이 동석하시어 서로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었다. 앞으로 다가올 중간고사에 대한 걱정부터 오지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기도제목까지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신모란 학우(08, 상담사회)는 “우리 새터민 학생들의 공통된 기도제목은 학교에 적응을 잘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학생들은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권사님을 위해, 권사님들은 자식 같은 학생들을 위해 서로의 손을 꼭 부여잡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다. 마음이 소통

되었던 이 시간은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이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다.

마지막으로 단체사진을 찍음으로 아쉬운 이별의 순간을 맞이했다. 서로를 꼭 안아주면서 감사함을 표하고, 동시에 아쉬움을 달래본다. 권사님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손에 선물을 하나씩 쥐어주면서 배웅해 주셨다.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두터운 후드티와 영양 보충을 위해 준비해 주신 과일 선물에는 권사님들의 학생들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김소진 학생(09, GLS)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선물에 마음이 너무 즐겁다”며 “감동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온누리교회 임소자 권사님은 “모두가 내 딸, 내 아들이 같이 너무 사랑스러웠다”며 “더 일찍 오지 못해 미안했고, 앞으로 이런 따뜻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었다. 박물관 관람은 가이드설명을 아브라함 리 교수님께서 동시통역해 주심으로 더 풍부하고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외국인 학생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닥터 게일 교수는 연신 “Incredible” 이라고 외치며, “과거부터 현대까지 예술 감각의 흐름을 보니, 한국인에게 Sense of Grace가 담겨 있다” 고 전했다.

한국 문화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식문화이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진 찜밥 메뉴의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익숙하지 않은 젓가락질을 연습해보지만 쉽지 않다. 손은 땀지뻘, 된장찌개, 부침개, 잡채 등 급식에서 먹어 본 익숙한 것을 향해 자꾸 뺏게 된다. 그러나 이내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이건 맛이 어때?’ 라는 물음과 함께 고사리, 조기, 호박잎 등에 젓가락을 가져가 본다. 식사를 하면서 겪게 된 새로운 경험을 간직한 채 부른 배를 두드리며 신라 동부 사적 지대를 산책하였다. 푸른 초원에 기분이 들뜬 아이들은 흥에 겨워 동화에 나오는 일곱 난쟁이들마냥 줄을 지어 걸어간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도자기 공예 체험을 위한 조그마한 공방이었다. 공방지킴이라도 되는 듯 공방 입구에서 우리를 맞아준 진돗개는 모두에게 인기였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너나할것없이 모든 학생들은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같은 흙점토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완성된 도자기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개성이 묻어났다. 머그컵, 인형, 수저, 국그릇 등 다양한 용도의 도자기와 함께 자기 나라만의 특유한 문양을 사용해 만든 도자기도 있었다. 또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있음을 알리기라도 하는 듯 ‘사랑해’라는 글을 각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여 하나의 도자기로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가마에 구운 후 2주 뒤 배달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체험을 마무리하면서 국제협력실의 아브라함리 실장님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소중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소개해 주고 싶어서 준비한 만큼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고 하셨다. 4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 문화 나들이



"한국, 어디까지 체험해봤니?"

“코리아는 어떤 나라 일까?”

한국에서의 생활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한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동의 문화만을 체험해 왔다. 이에 국제협력실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를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선선한 가을날, 경주로의 소풍을 준비했다.

경주로 출발하기 전 기대감에 부푼 학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은 시끌벅적했다. 아침으로 제공된 샌드위치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버스는 어느덧 국립경주박물관 앞에 도착해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천마도, 금관 등의 천마총 유물에서부터 빗살무늬토기, 문고리, 주사위 등의 일상용품까지 천년 신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난 11월 28일, 한동대학교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이는 포항시 관내의 10개 지역아동센터 180여명의 아동을 초청하여 100여명의 재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 담그는 체험과 함께, 직접 담근 김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행사이다.

흐린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장을 담그기 전 재학생 자원봉사자들과의 캠퍼스투어와 학교에서 제공된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본격적인 김장 담그기가 시작되었다. 준비된 배추와 무에 양념을 버무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기가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사실에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이날 함께 만든 김장은 참가한 아이들이 겨울동안 먹을 수 있도록 각 아이들의 집과 아동센터에 나누어 주었다.

김장 담그기가 끝난 후 아이들은

재학생 동아리에서 준비한 '사랑나눔콘서트'를 관람하였고, 재학생들은 이날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 페이스페인팅 및 체험 학습, 선물 등을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변혁 어린이(10세)는 "형, 누나들과 함께 김장을 담글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봉사자로 참가한 강성규 (04, 경영경제)학우는 "황금 같은 주말이지만 뜻깊은 행사이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뻐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학교에서의 '배워서 남 주자'는 정신은 늘 강조되고 있다. 작년 이맘때 역시 김장나누기 활동을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에 김장을 나눔으로 한동의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제 2회 사랑 마라톤

함께 달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 신 의
한 계 에 도 전
장 을 내 밀 듯
49.195km를 빨
리 달림으로 순
위가 결정되는
경 기 마라톤.

하지만 한동에는 자신의 속도를 낮춰 남과 함께 달리는 조금 특별한 마라톤이 있다. 바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2회를 맞은 사랑 마라톤이다.

‘사랑 마라톤’이란 포항 지역의 장애인 분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도우미 학우들과 함께 흥해 방면 왕복 10km 구간을 함께 뛰는 행사이다. 이번에는 우함주간보호센터, 우리공동체, 포항장애인체육회, 지체휠다모, 경북시각장애인연합 등 총 8개 기관에서 120여 명의 장애인 분들이 선수로 참여했다. 사실 이번 행사는 재정적인 문제로 개최되지 못할 상황이었다. 총학생회에서 주관으로 대회를 위한 예산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던 1회 때와는 달리, 제 2회 대회 때는 평의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었는데 총 600만원에 달하는 대회 예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한 학기 생활비 절반에 해당하는 50만원을 현금한 1학년 학우를 시작으로 공모전 상금을 기부

한 학우, 매달 받는 용돈을 기부한 학우 등 많은 사람들의 후원으로 이번 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사랑 마라톤은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랑 마라톤이 있는 행사 당일 학우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이른 아침 채플 별관에 모여 먼저 조별 모임을 갖는다. 오늘의 일정과 서로의 다짐을 함께 나누는 동안 장애인 분들을 태운 차량이 하나 둘 도착하면 첫 만남을 위해 다같이 손을 모아 파이팅을 외치고 계단 밑으로 마중을 나간다. 오랜 이동에 피곤할 만도 한데... 장애인 분들의 해맑은 웃음은 첫 만남에 대한 기대로 떨며 긴장한 학우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우리 학교에 와 보신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사랑 마라톤을 기념하는 따뜻한 후드티로 옷을 갈아입혀 드린다.



개회식과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한다. 식당까지 펼쳐진 가을 길을 걸으며 교정의 이곳 저곳을 설명하기에 여념이 없는 학우들의 열정적인 모습. 식당에 도착하면 푸짐하게 차려진 뷔페를 도우미 학우들은



정성을 담아 장애인 분들께 음식을 가져다 드린다. 조금 뒤에 있을 마라톤에서 쓸 힘을 위해 앞에 놓여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운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마라톤이 시작됐다. 출발선인 학교 정문 앞에 모여 다같이 준비체조를 한 뒤 “고고씽!”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200명이 넘는 장애인 분들과 봉사단이 함께 출발선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달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의 얼굴엔 뛰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나와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있음에 대한 고마움이 서려있었다.

마라톤을 완주하신 장애인 참가자 최정수씨(37세)는 “나는 다리가 불편해 직접 뛰지는 못했지만 나를 도와주기 위해 동행했던 한동대 학생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며 “삶에 최선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마라톤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자



장애인 분들과 도우미 학우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달리며 누군가의 형, 동생, 손자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을 내년의 만남으로 기약하며 어려운 작별 인사를 나눴다. 학우들은 아쉬운 마음에 활주로로 불리는 학교 진입로에 줄지어 서서 학교를 떠나는 장애인 분들을 태운 차량에 축복송을 불러주었다.

이번 대회 총 디렉터를 맡은 문성학 학우는(06, 국제어문) “포항엔 총 3만 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음 대회 때에는 더욱 많은 장애인 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바램을 나누었다. 또한 평의회 의장인 탁태우 학우는 “제 2회 사랑 마라톤은 많은 분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동 구성원들의 합심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랑 마라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상상하라! See the Invisible!

10학번 새내기들의 입학식과 한스트(HanST: Handong Spiritual Training) 현장

지난 2월 22일에 우리학교 효암채플에서 제16회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매년 입학식 때면 심술을 부리던 날씨가 올해는 푸근하게 10학번 새내기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악명 높은 한동풍마저도 입학식 때는 모습을 감췄습니다. 입학식에는 892명의 새내기들은 물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교수님들의 행렬이 이어지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렬 마지막 김영길 총장님의 모습이 보이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 찬송가와 조원철 학생처장님의 기도가 있는 후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한동 교육의 핵심인 ‘장인 공(工)자’를 언급하시면서 “철로 위에서 침묵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묵이 튼튼하다면 몇 천 톤의 짐을 실은 기차가 그 위를 지나가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침묵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一)으로 그 위에 지식을 곧게 쌓고 (1) 다시 이를 전세계로 펼쳐 (一)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김영길 총장님은 말씀 후 특별히 외국인 입학생들을 소개하여 주었습니다. 중국, 몽골, 미얀마, 마다가스카르, 아이티 등 국가를 호명하실 때 그 국적의 학우들이 일어서자 모두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 장순홍 이사장님의 축사와 입학생 대표의 답사가 있는 후 본격적인 한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라’ [고전 4장 18절]

이번 한스트는 ‘See the Invisible’라는 표어로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한스트의 첫 프로그램인 ‘Opening service’는 앞으로 1년간 동거동락할 팀 동기들과의 만남이, 두 번째 프로그램인 ‘Celebration’은 새내기인 자신들의 섬김이들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날, 'See the Joy'

밝고 활기 넘치는 동아리 한풍, Zizzy, 리퀴드 등의 공연이 있는 후 기숙사에서 새내기과 섬김이의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See the more'

한동의 이념과 비전, 한동비전선언문, 정직성과 신앙교육 등에 대한 영상과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한동의 특별한 가치를 접한 새내기들의 얼굴에는 비장한 기운마저 느껴졌고, 이들 가슴에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싹을 틔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내기들은 유쾌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앞으로 생활하게 될 한동의 정보(건물 이름, 기숙사 생활지침 등)들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셋째 날, 'See the Invisible'

무시무시한 철로역정과 수학시험. 철로역정은 각 코스마다 미션이 있고, 수행했을 경우 받게 되는스티커에 따라 저녁 식사 여부가 결정되기에 모두들 열심입니다. 각 팀에는

마스크를 써서 말을 못하는 이, 발이 묶여 잘 걷지를 못하는 이, 손이 묶여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설정하여 함께 미션을 수행해야 하기에 이를 통해 새내기들은 배려와 기다림을 배웁니다. 또한 팔굽혀펴기, 뽀뽀기, 림보 등 체력 소모가 많은 미션도 있지만 모두들 마냥 즐겁습니다.

철로역정 끝난 후 '리브 피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푸짐한 음식들이 철로역정 미션 수행으로 지친 새내기들을 유혹하였지만 교수님들이 오시기 전까지 유혹에 넘어가는 이는 없었습니다. 교수님들과의 첫 만남은 새내기들의 교수님을 향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하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날, 'See the Others'

한스트 기간 동안 새내기들은 식권을 절약하여 모은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뜻 깊은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명에서약식을 통해 한동의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런 비로 인해 피날레인 캠프파이어는 못하게 되었지만 새내기들에게는 평생의 추억이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스트였습니다. ㄷ





사진 제공 : 도토리픽처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한동 비전 영어캠프

국제화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한동대학교에서 2010년 1월 3일 ~ 22일까지 3주간 초·중 학생을 위한 영어 캠프가 열렸다. 한동 비전 영어캠프는 국제학교식의 Immersion program(체화학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캠프기간 동안 총 8 과목(웅변, 음악, 공연, 미술, 사회, 체육, 과학, 성경)을 배우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통합적으로 영어를 익힐 수 있게 된다.

캠프 시작 전 학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Beginner class와 Advanced class로 나뉘게 되고, 자신과 수준이 비슷한 1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된 반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

Beginner class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전 영역을 현 수준보다 한 단계를 높이는 수업으로, Advanced class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통해 보다 심화된 수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겨울 캠프의 주제는 “World changers”로 과학, 음악, 스포츠, 정치, 신앙 등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위인들을 선정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캠프 기간 동안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주제와 연관된 내용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수업 시간의 speech contest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반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게 된다.

캠프의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캠프기간 동안은 영어만 사용하도록 하기에 이 캠프는 실생활에서 영어 사용에 한계가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사용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게 한다. 캠프 진행을 위한 선생님은 인성과 영성, 실력을 겸비한 현지 원어민 교사 출신들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기에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캠프는 수업 외에도 다양한 클럽 활동과 함께 진행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문제를 토론하기도 하며, 4인 1실의 기숙사 생활은 집이나 학교를 통해 체험되지 못한 공동체 의식과 새로운 우정을 쌓는 기회를 갖게 한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는 만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기 마련이다. 이 문제는 상담실 운영과 담당 보조교사제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기독교 인성교육을 받은 보조교사들은 10대 시절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경험과 이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보아 주기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사진 제공 : 도토리픽처스

한동 비전 영어캠프는 2008년에 이어 2009년,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 경영 대상을 수상하며 교육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매 년 지역 교육청과 시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지역학생들을 교육함으로 학생들의 영어식사고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0 여름 비전 영어캠프는 오는 7월 18일(일) ~ 8월 6일(금)까지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입소식 당일 듣기(listening)와 쓰기(written) 및 원어민 교사와의 말하기(oral) 테스트 등을 통해 반 편성을 하게 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이다. 캠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동 비전 영어캠프 홈페이지(camp.handong.edu)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매 캠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한동 비전 영어캠프의 2010 여름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2010 여름캠프의 주제는 “Handong Global Media”이다. 학생들은 각 언론사의 주인이 되어 매일 새로운 방송을 시도하게 되는데, 한동 신문을 맡은 학생들은 인터뷰 대상자를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며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고, 매주 배달되는 한동 신문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다. 또한 한동 TV를 맡은 학생들은 매일 저녁 새로운 뉴스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그 외 각 반 학생들은 한동 언론사의 수습 기자가 되어 기사, 보고서, 리포트 쓰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모든 과정은 100% 영어로 진행되며, 캠프의 마지막에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반에게 우수상이 수여된다. ٪

“2010 여름 한동 비전 영어캠프”

일시 : 2010년 7월 18일~8월 6일(예정), 3주 과정
대상 :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
장소 : 한동대학교 캠퍼스

자료출처 : 동대학교 비전 영어캠프
홈페이지 : <http://camp.handong.edu>
캠프상담 : 054-260-1991~3

하나님의 산 역사 한동대 이야기 ‘갈대상자(일본어판)’이 발간되었습니다.



‘갈대상자(일본어판)’ 번역하신 하라다 마사오(Harada Masao) 교수님께서 후원자님들을 위해 10권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갈대상자(일본어판)”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를 한동대 발전협력실 이메일(papyrus@handong.edu)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 한동대 수상소식

공모전 및 대회명	부문	수상자
제 5회 건축구조경진대회 - 주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동상	고성규(02,공간시스템) 박상훈(02,공간시스템) 장정엽(03,공간시스템)
2009 사회적 기업 홍보 UCC 공모전 - 주최: 노동부	최우수상	정규성(04,생명과학) 박봉헌(08,생명과학) 김태영(09,GLS)
2009 경상북도 자원봉사 활동 공모전 체험수기부문	최우수상	정규성(04,생명과학)
2009 LG 글로벌챌린저	대상	정대장(02, 언론정보) 최준희(02, 경영경제) 이재규(02, 생명과학) 이혜주(07, 생명과학)
	금상	강동훈(08, 언론정보) 장새아(07, 산업정보)
제 10회 산타페 광고공모전	은상	유진희(05, 경영경제) 박종국(05, 언론정보)
	동상	김세민(05, 경영경제) 오영주(06, 언론정보) 이미레(08, 산업정보)
제 3회 해양바이오 창업아이디어 - 주최: (재)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	대상	이안나(04, 생명과학) 안효선(06, 생명과학)
	우수상	송태준(03, 생명과학) 김영훈(03, 생명과학)
	장려상	정지웅(02, 생명과학) 탁미현(04, 생명과학)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염찬국(06, 경영경제)



2009. 10. 1 ~ 2010. 1. 30 신규후원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강덕례	김진광	백승주	유해천	이지혜	정진화	한진희
강미숙	김진숙	백영자	윤순덕	이진의	정해주	한혜자
강복신	김진원	서정윤	윤웅희	이철우	조근형	허신비
강선규	김하정	설기수	이경화	이춘	조성래	홍경섭
고성혜	김학대	성진영	이근철	이충만	조세은	홍근민
곽영경	김학철	손예슬	이다빈	이현옥	조수민	홍은주
곽장신	김현길	손창민	이덕준	임광수	조승희	황미영
구본규	김현지	송신용	이동순	임승숙	조현자	황보원
권혜린	김혜민	송재숙	이명선	임택	조활	황사라
김갑철	김희도	신용길	이병욱	임흥준	주순희	(사)네오미션
김경희	문미란	신은주	이병호	장미	지영호	(주)스튜더코리아
김계순	문해석	신일아	이성규	장민국	진송희	(주)옥종합식품
김기봉	박귀호	신정연	이성석	장은영	진영자	(주)위투디
김동건	박근호	신정은	이성자	장정희	채애자	(주)이엠코리아
김동은	박미선	신중호	이순복	장춘자	최건	노원샘물교회
김민숙	박병주	신진숙	이승찬	장현신	최남수	대전문창교회
김민정	박서용	신현채	이영분	전대현	최동욱	함께하는교회
김선택	박성문	심귀용	이영의	전영호	최맹희	아가페기독교백화점
김세현	박애란	심재용	이영태	전혜순	최상옥	무명 및 익명자 8명
김숙진	박영인	안복선	이예영	정기호	최예균	
김애경	박용숙	안영용	이유자	정만병	최옥순	
김영숙	박정완	안정은	이윤섭	정상철	최윤제	
김유정	박종선	안창복	이은심	정소양	최충근	
김은영	박주니	안홍진	이은조	정승건	최충렬	
김은자	박혜옥	양범주	이인순	정옥연	최현미	
김인환	박혜지	양중섭	이임경	정우영	추은희	
김정국	박희현	오범균	이재설	정은애	한남순	
김정식	박희원	오진균	이정렬	정은혜	한동휘	
김정현	반혜숙	오원택	이정희	정의신	한송이	
김종래	백기동	옥연호	이주영	정정자	한수현	
김종욱	백문화	우인숙	이지연	정종식	한주신	

후원안내

한동대학교는 개교 초기부터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은 World Christian Leader를 양성하는 초석이 되며 한동대학교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등록금에 대한 높은 의존율과 미미한 정부보조금으로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한동대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 선교 비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모색하게 된 것이 발전기금입니다.

대학발전기금이 모여 장학금 확충, 교수채용, 학술연구 활동, 교육선교 사업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임으로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갈대상자	팀워크(TimWork)	보아스
한동대학교는 갈대상자와 같습니다.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가 후일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새로운 소망 한동대학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꿈, 그가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의 갈대한 올 한 올처럼 기도와 후원의 한 손길 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교육 선교 프로그램으로, Tim은 Timothy(디모데)의 줄임말로 TimWork는 '디모데 사역'이란 뜻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나 최근 선교지의 어려움을 통해 제약이 많은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현지의 유능한 인재들을 한동대에서 신앙은 물론 학문까지 체계적으로 공부시켜 본국에서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해당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이끌어준 바울, 개발도상국과 미전도지역의 청년 리더양육을 위한 바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고백으로 확신한 기근이 있던 타향살이를 하게 된 나옴 앞에 곡식자루가 쏟아졌습니다. 그녀 앞에 선 보아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동대학교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보아스를 예비하시어 극복을 하시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동의 국제화를 위한 제2의 도약 앞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부르고 계십니다.
○ 후원금액 : 1구좌 1,000원	○ 후원금액 : 1구좌 10만원	○ 후원금액 : 1구좌 100만원

○ 갈대상자 후원가입

* 우편엽서를 통한 후원 가입

오른쪽 한동대학교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전화를 통한 후원가입

발전협력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홈페이지 통한 후원가입

<http://www.handong.edu> → 후원참여 → 후원프로그램 → 갈대상자 인터넷 신청

○ 변경사항 수정 및 종료하실 때

후원자님의 기타 변경 사항 및 여러사정으로 후원을 종료하셔야 될 경우
발전협력실로 전화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기부금은 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공제혜택 받습니다.

○ 기타 기탁방법 안내

현금 기탁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소장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도
발전협력실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한동대학교 발전협력실

전화 : 054-260-1063~65, 팩스 : 054-260-1069, 전자우편 : papyrus@handong.edu

**후원자님의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면
반송 우편료가 절약되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소중하게 쓰이게 됩니다.**

입학특징

- 수시 100%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선발
- 96년부터 15년간 **모든 학생 100% 자율전공** 시행
-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 성적, 학부인원에 상관없이 원하는 전공 자유롭게 선택가능

791-70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 **대표전화** (054)260-1111 | **입학상담** (054)260-1082~4
팩스 (054)260-1079 | **E-mail** admissions@handong.edu | **홈페이지** <http://handong.edu>



www.handong.edu

한동대학교 발전협력실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전화 : 054-260-1063

팩스 : 054-260-1069

E-mail : paypyrus@handong.edu

미국 LA H.I.F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C/O Cornerstone Church
Harbor City, CA 90710, USA

전화 : 310-530-4040

팩스 : 310-530-8400

E-mail : lahandong@hotmail.com

미국 워싱턴-볼티모어 H.I.F.I

Handong International
Foundation Inc.
816 Thomas Run Drive,
Great Fall, VA 22066, USA

전화 : 703-450-1886(home)

팩스 : 703-450-0386(home fax)

E-mail : KSC@bskb.com